

임재해 저,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

— 傳統論의 點檢과 民俗研究의 方向設定 —

전통에 대한 논의만큼 획일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드물다. 1930년대 전통단절론에 대한 맞바람이 거세게 일어난 이래 전통을 긍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하나의 축으로 굳어지면서, 때로는 단절처럼 보이는 급격한 변화도 否定的 繼承이나 再創造라는 용어로 부르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이제는 전통론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일단락되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持續性을 입증해 내는 작업만이 남았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들리기까지 한다. 전통계승론의 바람은 移植文化論을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나 역기능적인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국문화를 실상과 어긋나는 방향에서 미화하게 하고 持續性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연구자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라는 강박감을 심어준 것은 분명한 역기능이다. 전통의 개념을 보편타당하게 정의하고 새로운 전통론을 수립하자는 목소리를 은연중 나오지 못하게 한 것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역기능에 해당된다.

이런 시점에서 저자는 전통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개별 논문을 내놓았고, 이것을 책으로 묶어 그동안 피력해 온 논점을 한 방향으로 결집했다. 기왕에 발표한 글들을 묶었는지라 관심사가 여러 갈래로 나타날 법하지만, 내용에 따라 편차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보니 전통론에 대한 논점이 저자의 다른 어느 저서보다 더 선명해진 것 같다. 전통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편견 못지 않게 긍정적인 편견 또한 문제라고 한 것이 무척 인상적이다. 저자는 긍정적인 편견으로 國碎主義, 復古主義, 商業主義를 들고 있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무조건 제일로 간주하거나 과거를 동경한 나머지 전통에 대해 맹목적으로 애착을 갖거나

선전을 통해 자기 고장을 과대포장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삼거나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편견이라고 못박았던 것이다. 이 중에서 전통을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은 작금의 현실을 돌아볼 때 시사하는 바가 특히 크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승이 끊어진 무형문화가 복원되기도 했지만, 이에 편승하여 특정개인의 업적을 내세우고 상업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빠뜨려진 자세를 경계하고 잘잘못을 가려 내는 일은 필요조건이기는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민속문화를 제대로 알고 재창조해야 마땅하다는 소리를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도 이것을 실제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공소한 관념에 그치고 만다. 저자는 뚜렷한 방법론적 인식을 가지고 안동지역의 민속문화를 연구함으로써 전통이 무엇인지를 정면에서 문제삼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가 누차 언급하고 있다시피 안동은 제비원 비류발, 하회탈과 탈춤, 동채싸움, 놋다리밧기 등의 유무형문화재를 많이 간직한 고장이다. 조선조 이전부터 전해오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므로 민속연구가라면 누구나 안동을 연구대상지역으로 떠올려 보기 마련이다. 안동이 天惠의 민속 고장이라고 해서 누구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 실적을 위해 몇 차례 답사하는 정도로는 지역문화에 깊숙이 파고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성이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민속문화의 속성상 몇 차례 탐방하는 정도로는 전승문화의 표면만 보기 일쑤이며 심층을 헤아리기 어렵기에 그런 것이다.

민속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역사, 형제, 성적을 꿰뚫어보는 자가 가장 이상적이다. 지방에는 어디에나 郷土史家가 있다. 이들은 애향심이 강하고 고장의 내력을 잘 알고 있기에 지역의 민속연구가로서는 適格이라고 할 지 모른다. 郷土史家 중 활동이 대단한 사람도 없지 않으나 대개는 학문적 체계와 방법론이 미숙하므로 궁극

적인 과제는 그 지역의 대학교수에게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수라고 해서 조건을 모두 갖춘 것이 아니기에 문제이다. 향토의 대학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연구능력이 부족하거나 연구능력이 뛰어나더라도 향토에 몸을 담지 않았을 경우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향토의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능력이 뛰어난 경우야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볼 때 저자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향토의 대학에 재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능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저자와 안동의 만남은 가히 운명적이라고 하겠고, 이로 인해 국문학의 한 갈래인 구비문학과 민속학은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한국민속의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따지고자 애쓴다. 대부분 안동지역의 민속문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도 저서의 제목으로 『한국민속과 전통의 세계』라고 한 것은 이런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I. 민속문화의 계승과 전통의 재창조
- II. 지역문화의 재인식과 민속문화의 세계
- III. 세시풍속의 이해와 민속의 세계
- IV. 기우제의 제의적 성격과 주술의 세계
- V. 전통생활의 모습과 민속문화의 세계

전체가 V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I 장에서는 민속문화의 전통이 새삼스럽게 제기되는 이유를 산업사회의 변동과정 속에서 추출한 다음 바람직한 전통을 어떤 방향에서 수립하면 좋을 지를 다각도로 모색했고, II 장에서는 안동지역문화의 특징을 탐지하고 발전가능성을 더욱 조장해야 한다는 쪽으로 논지를 모았다. I 장은 전통 일반론을 다룬 것이라면, II 장은 일반론이 안동이라는 구체적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핀 셈이다. 저자는 I, II 장에서 유달리 굵고 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통의 단절을 부추기는 요인이 외국문화의 유입 때문이 아니라 都市化라는 내부적 요인 때문임을 지적하는 데서는 굵고 긴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한다. 어떻게 보

면 들뜬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은 원래 각 글들을 실은 揭載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흥분된 어조는 Ⅱ장을 지나면서 말끔히 가셔지고 Ⅲ장부터는 대상을 차분히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구가의 태도가 나타난다. Ⅲ, Ⅳ, Ⅴ장이 본 저서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Ⅲ장에서는 설과 보름민속과의 관계, 뚝다리밧기 춤의 유형과 의미, 하회탈춤을 통해 본 민중적 세계관, 하회탈의 예술성과 사회성을 다루었는데, 관심의 방향은 각기 다르지만 탄탄한 現場論의 바탕 위에 대상의 기원, 기능, 특성을 구조적 안목으로 파헤치고 있는 점이 한결같다. Ⅲ장에서는 세 편의 글을 통해 기우제와 주술의 관계를, Ⅴ장에서는 민요와 이야기를 통해 전통사회와 담당층의 의식세계를 조명했는데, 연구대상의 변모과정을 시대적 성격 속에서 파헤친 점이 이채롭다. 지금까지도 민속연구라고 하면 으레껏 연행현장의 자료나 채록하고 해설을 덧붙여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저자는 일련의 글들을 통해 사회사, 문화사, 예술사 전반에 두루 걸려 있는 관심사를 파헤치는 것이 민속연구의 중요한 과제임을 웅변하고 있다. 하회탈춤이 종교적 세계관이나 극예술의 차원에서 이해된 경향을 비판하고 하회탈춤을 파생시킨 문화적 바탕이 별신굿이라는 점을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다졌다든가 별로 더 할말이 없을 것 같은 하회탈을 대상으로 이목구비와 색깔 빛 얼굴의 윤곽을 예술적인 측면에서 조감하고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든가 하는 것은 사회사, 문화사, 예술사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성과이다.

이런 성과가 대단하지만 異義를 제기할 부분이 없지는 않다. 한 가지만 들어보기로 한다. 저자는 전통을 귀족적 전통과 민중적 전통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개성이 말살된 획일성 내지는 전체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후자는 개성이 뚜렷한 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규정된 뒤 후자를 택해 민속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통을 편의상 분류하는 정도라면 모르거니와 이 분류로 연구대상을

선별하는 데까지 적용하고 일단 선별한 대상을 이런 쪽으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지나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민속예술은 민중의 세계에서 그 자체로 존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층문화의 移入 내지는 衝擊에 대립하거나 융화하는 과정을 거쳐 존속 성장해 왔다. 판소리는 민중문학에서 시작되었지만 대립과 융화의 과정을 거쳐 양반사대부들이 즐기는 공연가창물로 상승해 갔음을 상기해 볼 만하고, 판소리 이외의 민속예술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가 아니리라 여겨진다. 이른바 귀족적 전통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민중적 전통의 성장에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따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저서에서 다룬 관심사는 여기에서 마무리될 성질이 아니다. 세시풍속, 민요와 이야기만 하더라도 시각을 뚜렷하게 지닌 연구자라면 무한정의 과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서론에서 이 책 이외에 앞으로 세권의 책이 더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면서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앞으로 나올 일련의 책들도 한국민속의 전승원리와 담당층의 의식세계를 일관되게 밝힐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국민속을 안동지역문화를 통해 밝히는 작업은 확실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정작 한국민속 전반에 대해서는 허전한 자리가 남게 된다. 지역문화에서 도출한 원리를 미루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허전한 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을 터이다.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방법론을 다지고 국내 지역민속 간의 비교연구, 국제 민속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지역민속, 한국민속을 한층 입체적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쪽 방면으로 저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볼수록 사명감이 생길 것이다.

(지식산업사, 1991)

辛 泰 洙